

정 책 과 제 도

2002년 주요 실업대책

강승복*

I. 배 경

- ◆ 정부는 11월 27일 및 12월 17일에 「동절기 고용안정대책」 및 「청소년 실업종합대책」을 각각 발표
 - 「청소년 실업종합대책」은 내년 12월까지 5,246억원의 예산으로 3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, 「동절기 고용안정대책」은 내년 3월까지 5,038억원의 예산으로 4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
- ◆ 2001년 11월 현재 청소년(15~29세) 실업률은 7.3%(341천명)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1월의 12.6%보다는 크게 하락하였음.
 - 그러나 <표 1>에서 보듯이 여전히 전체 실업률(3.2%)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
 -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계절적으로도 내년 1/4분기에는 청소년 실업자가 4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(노동부) - 따라서 민간 및 공공부문이 함께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*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연구원(kangsb@kli.re.kr).

<표 1> 청소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

	1997. 11	1998. 11	1999. 11	2000. 11	2001. 11
청소년 실업률(%)	6.1	12.6	8.5	6.7	7.3
청소년 실업자(천명)	329	614	412	322	341
전체 실업률(%)	2.6	7.2	4.4	3.6	3.2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연보』.

- 대기업, 중소기업, 금융기관 등을 망라한 각 부문에서 신규 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공공부문에서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, 공공근로, 직업훈련 등 단기적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
 -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, 중·장기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
- ◆ 최근 고용사정은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서비스업종의 고용흡수에 힘입어 총량적(總量的)으로는 양호한 수준임
- 금년 2월 5.0%(실업자수 1,069천명)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월 이래 3.5% 미만에서 안정되어 있으며, 10월 현재 3.1%(실업자수 699천명)를 유지

II. 청소년 실업대책

(1)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

- ◆ 재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「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」 등에서의 적극 동참을 유도

- 자체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·증권·보험연수원 등에 대해서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
 - 이수자는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 취업시 금융·회계업무 유경험자로 우대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.
 - 1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실업자 직업훈련 승인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연수생에게도 교통비와 식비 지급

◆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알선토록 유도

◆ 금융기관,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을 적극 권장

- 신규채용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「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프로그램」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

(2)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

◆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(155천명)

- 기발표된 82천개 외에 73천개 일자리 추가 창출
- 「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」사업으로 50천명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
 - 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미취업청소년 15천명에게 취업기회 제공(중소기업 대상)
 - 1인당 월 50만원을 3개월간(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) 지원
 - 연수지원사업으로 고교·대학 졸업반 학생, 졸업생 등 35천명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(대기업, 공기업 등 대상) 1인당 월 25~30만원을 3~6개월간 지원
- 동계 방학기간 중 1만명의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「중소·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」을 실시(중기청, 추가)

- 월드컵 통역안내, 문화유산 해설 등을 통해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(문광부, 기발표)
 - 월드컵 인력지원 2,960명, 생활체육지도자 928명, 문화유산 해설사 469명 등
- 1,700명의 청소년에게 IT전문분야 해외취업 및 연수기회 제공(정통부, 기발표)
 - 일본취업 지원교육(700명) : 교육비의 70% 지원(450만원 한도)
 - 미국·인도 등 IT교육기관 연수(1천명) : 교육비의 50% 지원(500만원 한도)
- 청소년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으로 47천명에게 일자리 제공(행자부, 노동부, 건교부, 추가)
 - 중앙부처(1,402명) : 국가기록물 관리 1,080명, 국가교통D/B 구축 322명
 - 지자체(46천명) : 3개월 단위로 추진되며 1인당 월 60만원 수준 지원
 - 금년 불용예산, 지방비 등(300억원) 및 2002년중 기확보 예산(525억원)으로 추진
- 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10,700명 고용창출(행자부, 복지부, 추가)
 - 공무원 신규채용 9천명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채용 1,700명
- 초·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및 교무보조인력으로 5,500명 채용(교육부, 추가)
 - 지방교육예산 412억원 활용(전산보조원 2,000명, 교무보조인력 3,500명)
 - 1인당 월 70~80만원 지원
- 「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」를 활용하여 장기실업 청소년 22천명에게 혜택(노동부, 기발표)
 -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
- 구직세일즈사업으로 3,200명 고용창출(노동부, 기발표)
 - 구직세일즈사업 참여자는 본인이 취업할 직장을 찾거나 다른 실업자가 취업할 구인기업을 발굴
 - 1인당 월 60만원 수준 지원

◆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실시(145천명)

- 기발표된 114천명 외에 31천명 추가 실시
- 취업유망분야(프로그래머, 선물거래사 등) 등에서 86천명의 청소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실시(노동부, 기발표)
 - 2001년 추경예산(150억원)에 의한 6천명 포함.

-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포함하여 1인당 월 40만원 수준 지원
- 비진학 청소년 10천명을 대상으로 우선직종 훈련(기계설계제작, 특수용접 등)을 실시하여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(노동부, 기 발표)
 -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포함하여 1인당 월 50만원 수준 지원
- 저소득 청소년 26천명에게 S/W기술교육 실시(정통부, 기 발표 10천명, 추가 실시 16천명)
 - 교육비 전액 지원
- 국제공인과정 중심의 IT전문교육 5천명 실시(정통부, 기 발표)
 - 교육비의 50% 지원(300만원 한도)
- 광고전문가 등 문화산업 전문인력 2,214명 양성(문광부, 기 발표)
 - 광고 1,254명, 디지털방송영상 400명, 게임 200명, 출판 200명, 독립제작사 프로듀서 40명, 영화아카데미 30명 등 양성
- 국내기업 해외 현지지사 파견교육 등을 통해 무역 전문인력 550명 양성(산자부, 기 발표)
 - 해외 현지지사 파견교육(100명) : 항공료 및 월 100만원 지원
 - 트레이드 인큐베이터 450명 : 무역실무, 무역영어 등 교육비 지원
- 대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사업을 실시하여 벤처분야 창업 등 촉진(산자부, 추가)
 - 사이버교육, 벤처기업 현장실습비 등 지원
-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12천명에게 혜택(중기청, 추가)
 - PC구입비, 아이템 개발비 등 지원

(3) 중소기업으로의 청소년 취업 적극 유도

- 영세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
 - 「Clean 3D사업」등의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(2001년 : 275억원→2002년 : 365억원)
 - 업체당 최고 4,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
-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 직업훈련수당 인상(2001년 10만원 →2002년 20만원)

- 방학기간을 이용한 「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졸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
- 중소기업(50인 미만) 재직자 중 직업능력개발 희망자 전원에게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
 - (현재) 이직예정자·50세 이상 근로자·정보화기초과정수강자→(개선) 전근로자
 - 2002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신규 대학졸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위해 ‘눈높이 조절’을 위한 상담 강화
 - 일제구직등록(11.19~12.14) 및 구인조사(11.26~12.7) 결과를 기초로 적극 취업알선 전개 중

(4)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

◆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·학사 운영을 유도

- 대학의 학과와 교과과정 편성시 직업전망,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유도
 - 교과나 학과를 편성하는데 신호기능을 할 수 있도록 「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」을 추진(2001~2003년)
- 수시채용, 경력자 선호 등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학제·휴학요건 유연화, 재학 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활성화 방안 등 강구
 - 금년 하계 방학시 시행한 「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」 참여자에 대하여 일부 대학에서 학점 인정
- 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하는 관행 확대 유도

◆ 「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」지원

- 각급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간 연계를 강화하여 진로상담 및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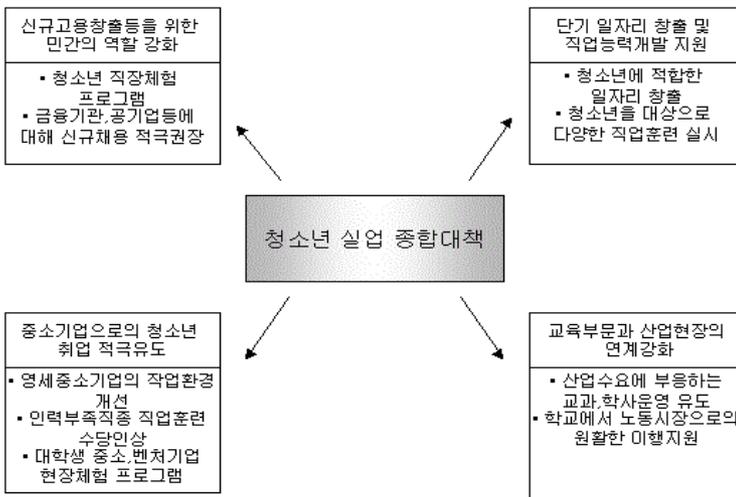
-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, 자격요건,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(2001~2003년)
- 청소년 패널조사(Youth Panel)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
 - 2001년 10월 1차조사 실시

◆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기능인력 배출

◆ 사설 기술계학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의 기술교육기능 확충

- 1년 이상 장기 수강생의 수강료 전액 은행융자, 수강료 책정의 자율화, 훈련기자재 구입시 세제지원 등

[그림 1] 청소년 실업종합대책



Ⅲ. 동절기 고용안정대책

◆ 내년 3월까지 총 5,038억원을 투입, 31만명 이상에게 혜택

<표 2>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사업

	2001년 4/4 추가	2002년 1/4	전체(318천명)
공공근로	40천명	84천명	124천명
직업훈련	41천명	70천명	111천명
인턴 등	5천명	30천명	35천명
자활사업	7천명	41천명	48천명

○ 이와 함께 ‘눈높이 조절’을 통한 취업지원도 강화(비예산)

– 11. 26. 현재 WORK-NET상 구인수요 100,294명(56,990개 업체)

◆ 금년도 실업대책사업들을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

○ 부처별 사업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(不用)을 최소화

– 2주 단위 「재정집행점검회의」 등을 통해 부진사업의 정상추진 독려

○ 금년 중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인턴을 전원 채용하고(5천명) 직업훈련 계획인원 중 미실시인원(41천명)도 훈련개시

– 11. 26. 현재 인턴 채용 4,900명

– 11. 26. 현재 직업훈련 목표 254천명 대비 213천명 훈련(83.8%)

○ 실업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, 종합평가 등 실시(11~12월)

– 새벽인력시장, 공공근로현장, 직업훈련기관 등 수시방문(4~5회)

◆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관련 사업을 추가 실시

- 4/4분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4만명 확대 추진(51천명 →91천명)
 - － 월드컵 대비 지원, 행정 정보화 등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실업자를 중점 선발(소요재원은 불용 예산과 지방비 등에서 총당(600억원)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4/4분기 자활근로(自活勤勞) 7천명 확대 실시(25천명 →32천명)

◆ 2002년 실업대책사업의 1/4분기 조기착수집중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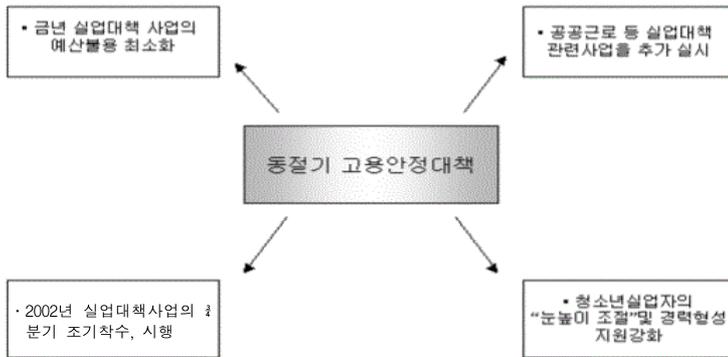
- 공공근로, 직업훈련 등 주요 실업대책사업을 1월중 개시
 - － 금년 12월 이전에 사업계획 확정, 대상자 선발 등을 완료(2002년 주요 실업대책 사업목표 594천명 중 225천명을 1/4분기 중 실시)
- SOC투자, 주택건설 등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도 조기 착수(전(全)부처)

◆ 청소년 실업자의 ‘눈높이 조절’ 및 경력형성 지원 강화

- 대학 취업부서 등과 연계하여 신규졸업 예정자 「일제 구직등록기간(11.19~12.14)」을 설정·운영
 - － 주요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구인조사(11.26~12.8)도 병행
- 「Clean 3D사업」 추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(2001년 9월~2002년)을 통하여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을 촉진
 - － 내년에는 보조금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(2001년 : 125억원 →2002년 : 365억원)
- 신규 졸업자 등의 경력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「정부지원인턴제」를 「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」으로 개편, 내년 1월중 시행

◆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실업자의 참여도 제고

[그림 2] 동절기 고용안정대책



<부표 1>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사업 내역

사 업 명	인원 (천명)	예산(억원)			시행기간	소관부처
		일반 회계	기금	계		
총 계	300.3	2,653	2,593	5,246		
청소년 일자리 창출	155.5	2,121	835	2,956		
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	50	750	-	750		노동부
- 인턴 취업지원	15	375	-	375	2001.10~2002.12	
- 인턴 연수지원	35	375	-	375	2002.1~12	
②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	10	20	-	20	2001.12~2002.2	중기청
③ 문화체험을 통한 고용창출	5	22	94 ¹⁾	116	2002.1~12	문광부
④ IT인력 해외취업·연수	1.7	-	90 ²⁾	90	"	정통부
⑤ 청소년 공공근로	47.4	861	-	861	2001.12~2002.12	행자부 건교부
⑥ 공무원 신규채용	10.7	-	-	-	2001.12~2002.2	행자부 복지부
⑦ 초중등학교 전산보조	2	150	-	150	2002.3.~12	교육부
⑧ 초중등학교 교무보조	3.5	262	-	262	2002.1~12	교육부
⑨ 장기실업자 고용촉진	22	-	651 ³⁾	651	2002.1~12	노동부
⑩ 구직세일즈	3.2	56	-	56	2002.1~12	노동부
청소년 직업훈련	144.8	532	1,758	2,290		
① 청소년 미취업자 등 직업훈련	86	482	972 ⁴⁾	1,454	2001.10~2002.12	노동부
② 비진학 청소년훈련	10	-	600 ⁵⁾	600	2002.1~12	노동부
③ 저소득청소년 S/W 기술교육	26	-	62 ⁶⁾	62	"	정통부
④ IT전문 교육	5	-	100 ⁷⁾	100	"	정통부
⑤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	2.2	25	11 ⁸⁾	36	"	문광부
⑥ 무역 전문인력 교육	0.6	15	-	15	2001.9~2002.8	산자부
⑦ 벤처인력 인큐베이터	3	10	-	10	2002.1~12	산자부
⑧ 대학생창업 동아리 지원	12	-	13 ⁹⁾	13	"	중기청

주: 1) 국민체육진흥기금, 관광진흥개발기금, 청소년육성기금

2), 6), 7) 정보화촉진기금

3), 4), 5) 고용보험기금

8) 영화진흥고 등

9)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

<부표 2> 동절기 주요 실업대책사업별 수혜규모(추계)

(단위: 천명, 억원)

		2001. 4/4 (추가)		2002. 1/4		전 체		비 고
		인원	예산	인원	예산	인원	예산	
전 체		133	1,338	285	3,700	418	5,038	
예산 사업	소계	93	1,338	225 (594)	3,700	318	5,038	
	공공근로	40	600	84 (221)	1,695	124	2,295	노동부· 행정자치부 등
	직업훈련	41	533	70 (170)	1,400	111	1,933	노동부· 정보통신부 등
	인턴 등	5	125	30 (40)	231	35	356	노동부
	자활사업	7	80	41 (163)	374	48	454	보건복지부· 노동부
비예산 사업	취업알선	40	-	60	-	100	-	노동부

- 주: 1) 예산사업 중 2002년 1/4분기의 ()는 2002년도 전체 목표수혜 인원임.
 2) 직업훈련 사업예산의 경우 10월 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실적을 훈련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4/4분기 잔여인원에 곱하여 추계한 것임.
 3) 내년 1/4분기는 전체 직업훈련 예산액에서 1/4분기 목표만큼 비율로 나눈 것임.
 4) 취업알선(비예산사업)은 전년도 규모를 감안한 예상치임.